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유형*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피해망상 환자집단과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애착유형 및 애착관계 특성을 알아보았다. 피해망상 환자 34명, 우울증 환자 34명, 정상인 통제집단 34명을 대상으로 편집 척도, 우울 척도, 애착유형척도, 성인애착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 자기개념척도, 자존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두려움형과 몰입형 애착이 많았고 친밀 수준은 낮고 불안 수준은 높은 애착관계를 나타냈다. 우울증 집단은 몰입형 애착이 많았고, 의존 및 친밀 수준은 낮고 불안 수준은 높은 애착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과 비밀관성이 피해망상 집단의 독특한 특성이었으며, 부모의 학대와 방치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공통 특성이었다. 성인기 애착유형 및 애착 관계의 질적 특성과 가장 광범위한 상관을 보인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의 방치와 어머니의 과잉간섭, 어머니의 비밀관성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편집증, 우울증,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애착 유형.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선행 연구들은 편집증 집단이 위협자극에 대해 주의 및 기억편향을 보이며(Fear, Sharp, & Healy, 1996; Kaney, Wofenden, Dewey, & Bentall, 1992), 부정적 자기개념과 방어적 귀인편향의 결과라는 사실(이명원, 1999; 이훈진, 1999, 2000a,b; 이훈진, 원호택, 1998;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1997, 2000)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치료적 접근이 개발되었다(이훈진, 2000c; Alford & Beck, 1994; Bentall, 1996; Chadwick, Birchwood, & Trower, 1996; Chadwick, Lowe, Horne, & Higson, 1994; Chadwick & Trower, 1996). 그렇지만 선행 연구들은 주로 편집증의 개인 특성에 초점을 두었고, 가족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편집증은 자기개념 및 자존감, 신념체계, 지각, 스트레스, 자기초점적·자기참조적 정보처리 편향 등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적절한 사회화, 권위주의적·지배적 가족분위기 등의 가족 요인, 급격한 환경변화, 구속, 고립, 통제상실 등의 상황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Brockington, 1991; Butler & Braff, 1991; Fenigstein, 1994; Manschreck, 1996; Mirowsky & Ross, 1983; Roberts, 1992). Kernberg(1998)는 사회 조직의 퇴행이 편집증과 자기에 성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며, Hinshelwood(1998)는 편집증과 피해망상은 사회집단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Berke(1998)와 Hernton(1998)은 편집증의 문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가족은 유아가 접하는 첫 사회이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성격 형성과 정신병리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로부터 발달해 성인기 대인관계와 정신병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장희숙, 1997, 2002; Ainsworth, 1989; Bowlby, 1969; Freeney & Noller,

1990; Harzan & Shaver, 1987; Ruiter, 1994; Sable, 2000). 최근 애착의 연속성을 근거로 성인기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Pietromonaco & Barret, 1997), 성인 정신병리 및 성격특질과의 관련성 및 애착이론에 근거한 치료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Brish, 2002; Dozier, Strovall, & Albus, 1999; 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Sable, 2000; Slade, 1999).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2001)은 애착유형에 따라 귀인양식,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가 다름을 보고하였다. Klein(1932/1975, 1935/1975)은 대상관계에서의 분리(splitting)와 불안정한 애착을 편집·분열성 성격의 원인으로 가정한 바 있다.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로는 성인기 애착유형을 연구한 이훈진(2002)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집단 모두 두려움 및 몰입 유형의 성인기 애착 유형을 나타냈고, 안정 애착 유형은 거의 없었다. 또한 편집증 집단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애착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인기 애착유형과 자존감, 성격 및 정신병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가족 요인은 초기 부모양육태도이다. 우울은 부모의 학대, 거부, 과잉보호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Jacobson, Fasman, & DiMascio, 1975; 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3), 어머니의 돌봄의 정도가 낮고 과보호가 많으면 우울, 불안, 적대감, 강박, 편집증 등 대부분의 정신병리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거부, 높은 기대, 불안, 통제적 태도는 높은 대인불안

과 관련되었다.

편집증과 관련해서도 어린 시절의 상처, 외상, 굴욕, 창피, 학대 등 부정적 경험과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Berke, Pierides, Sabbadini, & Schneider, 1998). 특히 적대적 양육경험과(Cameron, 1963; Millon & Davis, 1996; Pretzer & Beck, 1996), 지배적, 권위주의적, 통제적, 처벌적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이 논의되었으며(Fenigstein, 1994; Millon & Davis, 1996),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를 원인으로 가정하기도 했다(Auchincloss & Weiss, 1992; Winnicott, 1958). 그렇지만 편집증과 부모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김지영(2002)만이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 연구에서 편집성향이 부모의 학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방치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만을 대상으로 해 편집증 환자 집단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우울 집단 등 비교 집단과의 차이나 애착 유형과의 관련성도 알아보기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애착관계 및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전 단계로, 성인 편집증 및 우울증 환자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애착 특성을 알아보고,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애착 특성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우울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정한 이유는, 편집증과 피해망상이 위장된 우울증이라는 Zigler와 Glick(1988)의 주장 이후로 많은 편집증 연구들이 우울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이다. 개관한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피해망상 집단은 부모의 과잉간섭, 비일관성, 학대, 방치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두려움형 애착이 많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우울증 집단은 몰입형 애착이 많고, 부모의 방치와 학대를 높게 지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방 법

피험자

피해망상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 34명과 우울증 환자 34명, 그리고 이 두 환자 집단과 연령, 성별, 학력을 일치시킨 정상인 통제집단 3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3개 대학병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었다. 세 집단 모두 남자 16명 여자 18명이었으며, 중·고졸이 13명, 대졸 또는 대재 이상이 21명씩이었다. 연령은 15~48세로, 평균 연령은 28.14세였고,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F(2, 99) = 0.21, ns$. 진단별로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이 23명, 망상장애가 11명, 우울증 집단은 주요 우울장애 20명,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 14명이었다.

환자 집단은 주의치 또는 담당 치료 팀의 평정면접지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선발했는데, 현재 환각이 두드러지거나 피해망상 이외의 복합 망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우울 집단의 경우 기분과 일치되는 망상을 보이는 경우는 포함되었으나, 피해망상 등 다른 망상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검사 실시가 가능하더라도 부모가 일찍 사망했거나 장기간 접촉 없이 지내 부모에 관한 문항에 답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적응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울 척도와 편집 척도를 실시해 평균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였다. 평균은 우울 척도(한국판 Zung 우울척도)의 경우 이영호와 송중용(1991)의 연구에 보고된 38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편집 척도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a)에 근거해 24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구

편집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a)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 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성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Zung 우울척도 (한국판 SDS)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합치도(α) .79~.80이었고, BDI와의 상관(r)은 .70이었다.

자기보고형 애착유형척도 (Self-report Attachment Style: SAS)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애착 4범주 척도로,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하였다.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네 가지 항목 중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안정성,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항목 각각을 7점 척도로 평정한 후 가장 부합되는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여 각 유형별 점수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무시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으로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다. '몰입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

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두려움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해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성인에착척도 (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Hazan과 Shaver(1987)의 이론에 근거해 개발한 검사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친밀, 애착-불안, 애착-의존의 3가지 차원에서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한다. 애착-의존 척도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가용하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애착 불안 척도는 내가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다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애착-친밀 척도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선희, 오경자, 박종규, 이은정(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척도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개 차원을 43문항으로 측정한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방치’는 자녀가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67~.86으로 보고되었다.

자기개념 질문지

이훈진(1997)이 제작한 척도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 측면의 자기개념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이다. 내적 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되었다.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Rosenberg(1965)가 제작한 척도로,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b)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했으며, 내적합치도(α)는 .89였다.

분석

분석은 각 집단 별 애착유형 분포에 대한 카이제곱 검증 (χ^2 test),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한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검증을 위한 LSD 검증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부모양육행동 척도와 애착 척도간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모두 SPSS 1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집단 별 애착 유형 분포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성인기 애착유형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피해망상 집단은 두려움형 애착(35.3%)과 몰입형 애착(32.4%)이 많은 반면, 우울증 집단은 몰입형 애착(38.2%)과 안정형 애착(32.4%)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정상인 통제집단은 안정형 애착(64.7%)이 절대 다수이고 두려움형 애착은 1

표 1.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애착유형별 분포 (N=102)

	안정형 애착	무시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피해망상 집단	7 (20.6)	4 (11.8)	11 (32.4)	12 (35.3)
우울증 집단	11 (32.4)	4 (11.8)	13 (38.2)	6 (17.6)
정상인 통제집단	22 (64.7)	5 (14.7)	6 (17.6)	1 (2.9)
전 체	40 (39.2)	13 (12.7)	30 (29.4)	19 (18.6)

괄호 안은 비율 (%)

$\chi^2(6, N=102) = 21.38, p < .01.$

명백에 없었다. 이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몰입형 및 두려움형 애착이 많고, 안정형 애착은 적었다 $\chi^2(3, n=68) = 18.64, p < .001$. 우울증 집단과 정상 통제집단간의 차이도 유의미했다; $\chi^2(3, n=68) = 9.92, p < .05$. 그러나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3, n=68) = 3.06, ns$.

집단 별 애착 관계의 질적 특성,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자기개념과 자존감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자기개념 및 자존감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애착-친밀 수준은 정상 통제집단보다 낮고 불안 수준은 높았다. 우울증 집단은 애착-의존, 친밀 수준은 정상 통제집단 보다 낮고 불안 수준은 정상 통제집단 보다 높았다.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우울증 집단 및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부모의 과잉간섭과 비일관성을 높게 보고하였고,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부모의 학대, 과잉기대, 방치 수준을 높게 지각하였다. 우울증 집단은 부의 학대와 비일관성, 부모의 방치 수준을 정상 통제 집단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자기개념과 자존감 수준은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이 정상 통제집단보다 낮았고,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피해망상 집단은 낮은 친밀 높은 불안이 특징인 애착관계를 나타냈고, 우울 집단은 의존, 친밀 수준은 낮고 불안 수준은 높은 애착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부모

의 과잉간섭과 비일관성이 피해망상 집단의 독특한 특성이었으며, 부모의 학대와 방치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의 공통 특성이었다. 이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양육행동과 애착 특성 간 상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피해망상 집단,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애착 특성간 상관을 알아보는 것도 부모양육행동과 애착의 관련성에 대한 간접적 자료로서 유용하다. 통계적으로는 집단과 애착유형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2원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성인기 애착유형을 양육행동의 예언변인으로 가정하는 이론적 문제와 조건별 인원이 적고 편차가 심해(표 1 참조),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성인기 애착 특성간 상관만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애착 특성은 성인애착척도(AAS)의 세 애착 특성뿐 아니라, 자기보고형 애착유형척도(SAS)의 4범주 별 평정 점수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3 참조), 안정형 애착은 아버지의 애정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02) = .33, p < .001$, 어머니의 과잉간섭과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26, p < .01$. 무시형 애착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r(102) = -.22, p < .05$, 아버지의 감독과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28, p < .01$. 몰입형 애착은 어머니의 방치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35, p < .001$. 두려움형 애착은 부모의 방치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02) = .35, p < .001$; $r(102) = .34, p < .001$.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의 경우, 애착-의존은 어

표 2.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자기 개념과 자존감

		피해망상 (n=34)		우울증 (n=34)		정상 통제 (n=34)		F값
		M	SD	M	SD	M	SD	
편집 척도		36.21	(10.62) _a	25.38	(11.13) _b	17.94	(4.64) _c	33.30 ^{***}
우울 척도		40.15	(8.54) _a	46.68	(11.62) _b	34.97	(3.26) _c	16.05 ^{***}
애착관계 특성	애착-의존	18.08	(3.09) _{ab}	17.09	(3.40) _a	19.06	(3.01) _b	3.28 [*]
	애착-친밀	17.97	(3.48) _a	18.88	(4.20) _a	21.71	(2.92) _b	10.02 ^{***}
	애착-불안	17.68	(3.53) _a	17.44	(4.12) _a	14.85	(2.83) _b	6.55 ^{**}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애정: 부	16.75	(4.10)	16.06	(3.35)	17.18	(3.10)	0.85
	애정: 모	16.69	(4.24)	17.00	(3.31)	18.03	(3.17)	1.27
	합리적 설명: 부	13.16	(2.71)	12.52	(3.11)	12.88	(2.72)	0.41
	합리적 설명: 모	13.28	(2.75)	13.27	(2.83)	13.65	(3.13)	0.18
	학대: 부	10.28	(3.40) _a	9.30	(3.12) _a	7.74	(1.93) _b	6.62 ^{**}
	학대: 모	10.59	(4.04) _a	9.15	(3.08) _{ab}	7.65	(2.04) _b	7.26 ^{***}
	과잉간섭: 부	16.19	(4.28) _a	14.26	(4.07) _b	12.41	(2.88) _b	8.25 ^{***}
	과잉간섭: 모	17.59	(5.07) _a	14.94	(3.72) _b	13.56	(3.83) _b	7.63 ^{***}
	과잉기대: 부	14.77	(3.95) _a	13.72	(4.16) _{ab}	12.26	(2.94) _b	3.71 [*]
	과잉기대: 모	13.97	(3.76) _a	12.81	(3.81) _{ab}	12.03	(2.90) _b	2.47
	감독: 부	9.63	(3.56)	9.22	(3.03)	9.18	(2.04)	0.23
	감독: 모	10.91	(2.94)	10.75	(2.62)	10.70	(2.47)	0.53
	방치: 부	10.91	(2.82) _a	10.09	(2.57) _a	8.50	(2.14) _b	7.85 ^{***}
	방치: 모	10.22	(2.98) _a	9.41	(2.77) _a	7.85	(2.26) _b	6.68 ^{**}
	비일관성: 부	9.10	(2.24) _a	8.00	(2.11) _b	7.03	(1.57) _c	8.81 ^{***}
	비일관성: 모	9.74	(2.90) _a	8.18	(2.43) _b	7.09	(1.62) _b	10.34 ^{***}
자기개념		99.76	(20.06) _a	93.79	(19.81) _a	114.09	(11.48) _b	11.43 ^{***}
자존감		32.82	(8.39) _a	30.53	(8.55) _a	37.50	(4.68) _b	7.80 ^{***}

* $p < .05$. ** $p < .01$. *** $p < .001$

아래 첨자는 LSD 검중에 의한 집단 차를 나타냄.

공유하는 첨자가 없는 집단 간에는 $p < .05$ 수준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머니의 애정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r(102) = .31, p < .01$, 부모의 방치와는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25, p < .01$; $r(102) = -.25, p < .01$. 애착-친밀은 어머니의 과잉 간섭과

표 3. 부모양육행동과 애착 특성간 상관 (N=102)

변인명	안정형애착	무시형애착	몰입형애착	두려움애착	애착-의존	애착-친밀	애착-불안
애정 부	.33***	-.20*	-.02	-.08	.23*	.12	-.18
모	.29**	-.22*	-.05	-.11	.31**	.09	-.17
합리적 설명 부	.26**	-.02	-.02	-.04	.25**	.03	-.03
모	.12	.02	-.03	.02	.15	-.04	.001
학대 부	-.004	-.03	-.07	.08	.05	-.12	.12
모	-.10	-.02	.11	.16	-.19	-.15	.25**
과잉간섭 부	-.19	.14	.11	.22*	-.14	-.26**	.20*
모	-.26**	-.12	.22*	.28**	-.10	-.38***	.15
과잉기대 부	-.02	-.13	.17	.09	.03	-.23*	.11
모	-.10	-.20*	.19	.16	-.05	-.32***	.14
감독 부	.03	.28**	-.01	-.06	.03	.01	.04
모	.08	.06	-.05	-.02	.12	-.05	-.03
방치 부	-.13	-.04	.26**	.35***	-.25**	-.31***	.23*
모	-.02	-.001	.35***	.34***	-.25**	-.23*	.31**
비일관성 부	.05	-.09	.15	.28**	-.08	-.24*	.08
모	.05	-.13	.25**	.31**	-.20*	-.29**	.27**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38, p < .001$. 애착-불안은 어머니의 방치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02) = .31, p < .01$. 전통적 애착이론에서 불안정(insecure) 애착의 요소로 가정된 애착-의존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의존 척도 문항이 가용성과 신뢰 등 긍정적 특성만 측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기 애착유형 및 애착 관계의 질적 특성과 가장 광범위한 상관을 보인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은 부모의 방치와 어머니의 과잉간섭, 어머니의 비일관성이었다. 이 양육행동들은 집단비교에서도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핵심 특성으로 밝혀진 것으로, 성인기 애착관계는 물론 정신병리 발달과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피해망상 환자집단,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성인기 애착유형과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두려움형 애착과 몰입형 애착이 많았고, 우울증 집단은 몰입형 애착이 많았다.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에서는 피해망상 집단은 낮은 친밀, 높은 불안이 특징인 애착관계를 나타냈고, 우울 집단은 의존, 친밀 수준은 낮고 불안 수준은 높은 애착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행동의 경우, 부모

의 과잉간섭과 비밀관성이 피해망상 집단의 독특한 특성이었으며, 부모의 학대와 방치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의 공통 특성이었다. 성인기 애착유형 및 애착 관계의 질적 특성과 가장 광범위한 상관을 보인 부모 양육행동은 부모의 방치와 어머니의 과잉간섭, 어머니의 비밀관성이었다.

피해망상 집단이 두려움형 애착유형을 많이 나타낸 것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 해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자기 및 타인개념은 이훈진과 원호택(1998), 김지영(2002)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 모두 몰입형 애착 유형이 많았는데, 이는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대인관계 형성을 원하면서도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상대방의 평가와 인정에 과민해서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두려움형 애착과 몰입형 애착에서 나타난 타인에 대한 상반적 태도는 Chadwick 등(1996)이 구분한 편집증의 두 하위유형, 즉 “피해 편집증”과 “처벌 편집증”의 특성과 유사하며, 한편으로는 Klein(1932/1975, 1935/1975)이 편집-분열성 성격의 원인으로 가정한 분리(splitting) 개념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애착관계의 질적 특성 측면에서도, 애착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애착친밀 수준이 낮은 것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두 편집증의 핵심 특성인 불신 및 의심과 관련되는 애착 특성들이며, Millon과 Davis(1996)가 소개한 편집증의 “애착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성인기 편집증상과 애착 특성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애착과 정신병리의 관계 및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Bolby, 1969; Freeney & Noller, 1990; Harzan & Shaver, 1987; Sable, 2000)의 가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우울 집단이 피해망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형 애착이 많았다는 점 역시 Klein(1932/1975, 1935/1975)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착과 정신병리 연구에서 Klein의 대상관계 이론이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에서 나타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특히 과잉간섭과 과잉기대, 비밀관성, 학대 방치 등이 편집증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Auchincloss와 Weiss(1992), Berk 등(1998), Brockington(1991), Butler와 Braff(1991), Fenigstein(1994), 그리고 Winnicott(1958)이 가정한 편집증의 가족적 요인과 부모양육태도 특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지영(2002)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애착관계와 부모양육행동이 성인기 편집증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애착유형과 부모 양육태도가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서 중요한 발달적, 가족적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 이론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은 광장공포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상실이나 슬픔 등의 문제 영역에서 이미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Sable, 2000).

그렇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본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 연구여서 아동기 애착유형과 부모양육행동이 성인기 편집증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집단 차이와 상관관계만을 보여줬을 뿐 인과

관계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 척도들이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보다는 성인기의 애착 유형 또는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며(Harzan & Shaver, 1987), 초기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적 실행 모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성인 환자군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었지만,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Main & Goldwyn, 1985, 1998) 등 초기 아동기 애착관계와 내적 실행모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편집증과 분열성 성격 및 자기애성 성격 장애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Klein(1932/1975, 1935/1975)은 편집증과 분열성 성격을 동일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Havens(1991)는 편집증이 병적 자기애로부터 온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편집증과 분열성 성격 장애, 자기애성 성격장애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문제는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한계로, 표준화 집단이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회고적 보고에 따른 오류 및 편향 가능성, 피양육자인 자녀의 입장만 반영하고 양육자인 부모나 제 3자의 지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중 표준화 집단과 관련된 한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회고적 보고가 가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나, 부모의 보고를 받거나 제 3자의 평정 등을 통한 보완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자 집단에서 장애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아 망상이나 장애의 경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본 연구의 경우 현재 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로 표집을 제한했고, 비교적 수행이 쉬운 자기보고형 질문

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과에 따른 차이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으나, 장애 경과 변인을 측정해 그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던 피해망상 집단의 애착 특성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자료와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부모-자녀 관계 특성(애착, 부모양육행동 등)이 성인기 편집증 발달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고, 초기 애착관계와 내적 실행모델을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4.
- 김지영 (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년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896-903.
- 이명원 (1999). 자기개념의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

- 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이훈진 (2000a).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사회적 추론: 맥락정보 사용과 귀인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39-451.
- 이훈진 (2000b).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편향. 심리과학, 9(1), 77-99.
- 이훈진 (2000c). 정신병적 장애. 원호택 외 공저,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훈진 (2002).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91-807.
- 이훈진, 원호택 (1995a).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5b).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05-125.
- 장휘숙 (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97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198-208.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Auchincloss, E. L., & Weiss, R. W. (1992). Paranoid character and the intolerance of indif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0, 1013-1037.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ntall, R. P. (1996). From cognitive studies of psychosis to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psychotic symptoms. In G. Haddock & P. D. Slade (Eds.), *Cognitive-behavioural interventions with psychotic disorders*. London: Routledge.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erke, J. H. (1998). Reefer madness: Social fears and self-fulfilling prophecies. In J. H. Berke, S. Pierides, A. Sabbadini, & S. Schneider (Eds.),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London: Routledge.
- Berke, J. H., Pierides, S., Sabbadini, A., & Schneider, S. (1998).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London: Routledge.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 New York: Basic Books.
- Brish, K. H. (2002). *Treating attachment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ockington, I. (1991). Factors involved in delusion 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suppl. 14), 42-45.
- Butler, R. W., & Braff, D. L. (1991). Delusions: A review and integr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7, 633-647.
- Cameron, N. (1963).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Boston: Mifflin Company.
- Carnell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hadwick, P., Birchwood, M.,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voices and paranoia*.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adwick, P. D. J., Lowe, C. F., Horne, P. J., & Higson, P. J. (1994). Modifying delusions: The role of empirical testing. *Behavior Therapy*, 25, 35-49.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ozier, M., Stovall, K. C., & Albus, K. E. (1999).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 3). San Diego: Academic Press.
- Freene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Har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vens, G. D. (1991). Paranoid phenomena and pathological narcissism.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2), 160-172.
- Hernton, C. C. (1998). Between history and me: persecution paranoia and the police. In J. H. Berke, S. Pierides, A. Sabbadini, & S. Schneider (Eds),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London: Routledge.
- Hinshelwood, R. D. (1998). Paranoia, groups and enquiry. In J. H. Berke, S. Pierides, A. Sabbadini, & S. Schneider (Eds),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London: Routledge.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 (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 Kaney, S., Wolfenden, M., Dewey, M. E.,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ening propos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5-87.
- Kernberg, O. F. (1998). Paranoid social developments

- as a consequence of ideological and bureaucratic regression. In J. H. Berke, S. Pierides, A. Sabbadini, & S. Schneider (Eds), *Even paranoids have enemies: New perspectives on paranoia and persecution*. London: Routledge.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inderman, P., & Bentall, R. P. (2000). Self-discrepancies and causal attributions: Studies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55-273.
- Klein, M. (1975).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In *The writings of Melanie Klei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Klein, M. (1975). A contribution to the psychogenesis of manic-depressive states. In *The writings of Melanie Klein*.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5)
- MacKinnon, A., Henderson, A. S., & Andrews, G. (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n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Main, M., & Goldwyn, R. (1985).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Main, M., &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Manschreck, T. C. (1996). Delusional Disorder: The recognition and management of parano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7(suppl 3), 32-38.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pns.
- Mirowsky, J., & Ross, C. E. (1983). Paranoia and the structure of powerless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28-239.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Pretzer, J. L., & Beck, A. T. (1996). A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oberts, G. (1992). The Origins of Delu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1, 298-30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iter, C. (1994). Anxious attachment in agora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C. Perris, W. A. Arrindell, & M. Eisenmann (Eds.),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Chichester: Wiley.
- Sable, P. (2000). *Attachment and adult psychopathology*.

- Northvale: Jason Aronson Inc.
- Slade, A. (1999).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with adult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innicott, D. W. (1958). *Psychosis and child care*. London: Tavistock Press.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원고접수일 : 2004. 1. 19

게재결정일 : 2004. 3. 29

K C I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Attachment Styles in Persecutory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achment styles and the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 paranoia and depression. The Paranoia Scale, the Zung Depression Scale, the Self-repor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the Adult Attachment Scale, the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the Self-concept Scale,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were administered to 34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34 depressed patients, and 34 normal controls.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showed more fearful and preoccupied attachment styles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y showed higher anxiety and lower intimacy in attachment relationships than the control group. The depressed patients showed more preoccupied attachment style than the control group, and they showed higher anxiety and lower intimacy and dependency in attachment relationships than the control group. I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perceived their parents as more intrusive and inconsistent than the depressed and the normal controls. Both the persecutory deluded and the depressed patients perceived their parents as more abusive and neglective than the normal controls. The letting behavior of parents', the inconsistency of mothers', and over-interference of mothers' were highly related to the adult attachment style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ersecutory delusion, depression,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attachment style.